

# 여왕은 달랐다

김연아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女 싱글 1위  
점프 실수 예술성으로 만화...총점 204.49 기록  
2위 안도미키에 27.67 점차 압승...명불허전 연기



서 71.52점을 기록해 이를 만회했다. 71.52점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73.61점)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71.76점)에 이어 개인 통산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그만큼 표현력에 심판들이 다시 한 번 소리 없는 갈채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시즌 김연아가 프리스케이팅 배경음악으로 선택한 곡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다.

일반적으로 탱고는 살짝 엇박자를 만드는 특유의 리듬 때문에 피겨스케이팅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아디오스 노니노'는 피아졸라가 아버지를 여읜 뒤 만든 추모곡이다 보니 묵직한 감성을 숨긴 곡이다. 2006-2007시즌에 시니어에 데뷔하면서 쇼트프로그램에서 선보인 '록산느의 탱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던 이유이기도 했다. 실제로 검은색을 주조로 흰색 보석만으로 단순하게 장식한 드레스를 입고 연기에 나선 김연아는 매혹적인 연기로 기대치를 채웠다. 격렬한 감정과 아련한 향수를 날라다며 변화무쌍하게 연주되는 곡을 타고 이어지는 기술 사이사이에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김연아만의 연기가 가득했다.

빨라지는 박자에 맞춰 현란하게 이어진 스텝, 트리플 살코 점프 직후 멈추는 음악과 함께 손을 내뻗는 동작, 마지막의 강렬한 박자에 따라 양팔을 살짝 교차하며 끝내는 엔딩 등은 문외한이 봐도 흡입력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었다.

결과는 고득점이었다. 김연아는 1년 8개월 만의 복귀였던 지난해 12월 NRW 트로피(201.61점), 올해 1월 전국 종합 선수권대회(210.77점), 3월 세계선수권대회(218.31점)에 이어 네 대회 연속으로 200점대 기록을 달성했다. 국제대회만 따져도 통산 6번째 200점대 기록이다.

연합뉴스

‘피겨 여왕’ 김연아(23)가 자신의 은퇴 무대의 연기로 준비한 ‘그리움의 탱고’가 탁월한 예술성으로 심판들의 마음을 훔쳤다.

김연아는 8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동 스포르토바 빙상장에서 열린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0.60점과 예술점수(PCS) 71.52점, 합점 1점 등 131.12점을 기록했다.

지난 쇼트프로그램 점수(73.37점) 합계 204.49점을 기록한 김연아는 안도 미키(일본·176.82점)를 제치고 우승했다. 이날 김연아의 성적은 자신이 역대 국제대회에서 받은 기록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이다.

프리스케이팅 점수 역시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131.59점)에 이어 개인 7번째 기록이다. 원동력은 단연 뛰어난 예술성에 있었다. 이날 첫 점프에서 앞으로 넘어지는 실수를 저지른 김연아는 기술점수(TES)에서 60.60점에 머물렀다. 그러나 예술점수(PCS)에

## KIA 타이거즈 분주했던 주말

# 전설들 회포 풀고 영건들 투병 코치 돕고 훈련

타이거즈라는 이름으로 전·현직 선수들이 광주에 집결했다. 프로야구의 살아있는 역사인 타이거즈 OB들이 지난 6일 정기 모임을 갖고 추억을 회상했다. 자랑스런 역사를 물려받은 YB들은 투병중인 코치들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 ◇자부심으로 뭉친 타이거즈 OB

훈련원, 해결사, 핵잠수함 등 타이거즈의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타이거즈라는 이름을 달고 프로야구를 이끈 야구인들은 매년 정기 모임을 갖고 회포를 나누고 있다.

V10에 빛나는 팀답게 회원명단에는 내로라하는 이들이 즐비하다. 김응용(한화)·선동열(KIA) 두 사람만이 자리를 하지 못했지만 한대화(KIA)·김성한(한화)·이강철(넥센) 등 세 명의 현직 수석코치가 나란히 자리를 했다.

전국대회 3관왕을 달성한 동국대 이견열 감독과 투수 차명진(우선지명)의 스승 서창기 효천고 감독, 내야수 강한울(1라운드 지명)을 키운 김준환 원광대 감독 등 쟁쟁한 아마 감독들도 얼굴을 내밀었다.

“마당쇠” 송유석은 현역시절 별명처럼 OB 모임에서도 8년째 모임의 꽃은임을 도맡고 있는 주축 멤버.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봉연 극동대 교수와 최해식 최고루 대표, 해태 타이거즈의 부흥과 몰락을 지켜봤던 최윤범 전 단장도 매년 이맘때를 기다리는 멤버다.

야구대제전, 자선경기때문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지만 정회열·홍현우 등 막내급 회원들까지 34명의 타이거즈 역사가 추억을 나눴다. 진흥고 투수 코치로 변신한 강철민도 ‘신인’으로 모임에 참석해 OB일원이 됐다.

“타이거즈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고 입을 모으는 이들이지만 모기업이 바뀐 뒤에 느끼는 ‘단절감’은 이들이 가장 아쉬워하고 고민하는 부분이다.

이상운 회장은 “모임의 활성화 방안이 가장 고민이다. 애경사를 적극 알리고 참석하면 좋겠다. 역사를 이어 끝까지 함께 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벤트 등을 통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일에 함께한 타이거즈 YB  
지난달 29일을 끝으로 KIA선수단은 탈꿈한 휴가를 받았다. 고향에서 휴식을 즐기던 선수들이 병상에 있는 차영화·김동재 코치를 돕기 위한 일일호프가 열리

면서 다시 유니폼을 입었다.

선수들은 직접 팬들을 맞이하고 서빙을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구슬땀을 흘렸다. 신인 선수들 역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타이거즈 선수로서의 역할을 했다. FA로 KIA 선수가 된 이대형도 일일호프는 물론 사인회에 참석해 새 식구로서 얼굴을 알렸다.

팬들도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고 행사장을 찾아 좋은 일에 함께 했다. 애장품 경매의 반응도 뜨거웠다. 양현종의 글러브가 최고가인 85만원을 기록하는 등 유니폼(나지안·윤완주), 글러브(송은범·임준섭), 배트(안치홍·김선민·김주찬) 등이 모두 고가에 낙찰됐다.

OB, 한대화·김성한·이강철 등 레전드들 한자리

YB, 차영화·김동재 코치 돕기 일일호프·애장품전



연례 모임을 위해 지난 6일 광주에 모인 타이거즈 OB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후배들을 돌리려하며 행사를 진행한 이범호 상호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많은 팬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팬들의 열기로 행사의 의미가 더욱 커진 것 같다”며 “두 코치님이 빨리 완쾌되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 마음이 전해져 분명 쾌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배들도 후배들의 힘이 되어주었다. “후배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만큼 선배들이 힘을 보태자”며 OB 모임에서 100만원의 성금을 보냈다.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야구연합회(회장 김성한)에서도 200만원을 후원하면서 차영화·김동재 코치의 쾌유를 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hin Yang Park Hotel** 2013년 송년 디너쇼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남진

일시 | 2013년 12월 12일(목) 18:30  
 장소 |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165,000(세금포함)  
 예약문의 | 062)228-4711~2

프로그램

18:30 입장  
 19:00 식사  
 20:00 공연  
 21:30 퇴장